

정 소 우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고등학교 영어회화 교과서와 원어민
저자 회화교재 대화문의 화용론적 비교 분석

2008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영어교육전공

이 호 순

고등학교 영어회화 교과서와 원어민
저자 회화교재 대화문의 화용론적 비교 분석

정 소 우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8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영어교육전공

이 호 순

인 준 서

이호순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①

심사위원 _____ ①

심사위원 _____ ①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개요

본 연구는 우리나라 고등학교 영어회화 교과서에 제시된 대화문이 의사소통능력의 중요한 부분인 화용적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원어민의 대화에 나타나는 화용적 특징 및 전략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원어민 저자 회화교재와 비교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 대상으로 고등학교 영어회화 교과서 4종과 원어민 저자 회화교재 3종을 선정하여 말하기 활동 전 의사소통모델로 제시된 대화문에 초점을 두었고, 대화 스타일에 따른 화용론적 차이도 있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Joos(1967)가 분류한 대화스타일을 참고로 하여 대화문을 공식적, 중립적, 비공식적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간접화행(indirect speech act), 공손(politeness), 사전연쇄(pre-sequence), 삽입연쇄(insertion sequence), 비선호구조(dispreferred structure) 측면에서 양쪽 교재의 대화문을 비교 분석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대화 스타일 분류 결과 교과서 전체적으로 볼 때, 비공식적 대화가 차지하는 비율이 중립적 대화가 차지하는 비율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화문 분류기준인 Joos(1967)의 5가지 대화 스타일 중에서 가장 비공식적 대화에 속하는 친밀한 스타일의 대화문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고, 공식적 대화에 해당하는 신중한 스타일 역시 본고의 분석대상에서 제외되는 듣기 스크립트에 1~2개 나타난 것을 제외하고는 말하기 연습을 위한 대화문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다.

간접화행의 분포를 살펴보면 양쪽교재 모두 비공식적 대화문에서보다 중립적 대화문에서 간접화행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중립적, 비공식적 대화문에서 차지하는 간접화행의 비율차이는 교과서에서보다 원어민 저

자 회화교재에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나 후자가 상대방의 체면과 공손함을 고려하는 간접화행의 특성을 더 잘 보여주고 있다. 그 양상에 있어 양쪽 교재 모두 yes/no-의문문에서 가장 다양한 기능의 간접화행이 나타났고, 차이점으로는 대부분의 교과서에서는 간접화행의 기능이 중립적 대화보다 비공식적 대화에서 좀 더 다양하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공손측면에서 요청표현을 분석한 결과 원어민 저자 회화교재에서는 중립적 대화문에서 요청표현이 많이 사용되었고 적절한 공손을 지키며 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비공식적 대화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정중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대화구조 측면에서는 우선 교과서에 두 종류 이상의 사전연쇄를 찾아볼 수 있었고, 삽입연쇄 역시 원어민 저자 회화교재에서는 친구사이의 대화에서만 나타난 반면, 교과서에서는 보다 다양한 관계의 사람들 사이의 대화에서 좀 더 길게 나타났다. 그리고 비선호구조의 비율은 교과서와 원어민 저자 회화교재에서 각각 14.41%, 23.66%로 회화교재에서 더 많이 찾아볼 수 있었고, 이에 따라 상대방이 기대하지 않는 대답을 할 때의 표현방법도 회화교재에서 더 다양한 전략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화용적 능력 신장 측면에서 영어회화 교과서의 대화문이 가지는 한계를 수정, 보완하기 위해서는 영어회화 교과서에서 신중한 스타일과 친밀한 스타일의 대화문이 좀 더 다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고 비공식적 스타일로 분류된 대화문은 실제 비공식적 대화의 특징을 좀 더 반영하여 격식을 낮추어야 할 것이다. 또한 비공식적 대화에서 너무 정중하게 나타난 요청표현은 자제하고 적극적 공손표현이 함께 나타나는 것이 보다 자연스러울 것이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의 구성 및 제한점	3
II. 이론적 배경	5
1. 화용적 능력	5
2. 화용론의 주요개념	7
1) 공손과 체면	7
2) 화행이론	10
3) 대화와 선호구조	13
III. 연구방법	16
1. 분석대상	16
1) 영어회화 교과서 대화문	16
2) 원어민 저자 회화교재 대화문	17
2. 분석기준	18
1) 대화 스타일 분류	18
2) 화용론적 요소	19
IV. 연구결과	22

1. 대화의 스타일	22
2. 화행과 공손	28
1) 간접 화행	28
2) 공손 표현	32
3. 대화구조	38
1) 사전연쇄	38
2) 삽입연쇄	42
3) 비선호구조	45
 V. 결론 및 제언	 49

참고문헌

ABSTRACT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영어교육에 대한 문제점으로 많은 것들이 지적되어 왔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많은 비판을 받아왔던 것은 문법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이러한 지식들을 실제 언어 활용상황으로 연결시키지 못했다는 점이다. 기계적이고 단편적인 언어 지식의 주입으로 인하여 학생들은 영어라는 언어에 대한 흥미를 잃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실질적인 의사소통능력의 향상을 이루기가 어려웠다. 이러한 과거의 영어교육은 21세기 세계화, 정보화 시대를 주도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한국인 육성을 목표로 하는 제 7차 교육과정의 도입으로 많은 변화를 맞게 되었다.

7차 교육과정에서는 상황에 따른 적절한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에 강조점을 두고 정확성과 유창성을 추구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의사소통 능력이란 어휘, 문법 등 언어의 용법에 대한 지식만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 언어를 상황에 맞게 적절히 사용하는 능력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학자마다 의사소통 능력에 관한 정의를 조금씩 다르게 내리고는 있지만, 공통적으로 의사소통을 사회적 상호작용으로 보고 실제 의사소통 상황과 맥락에 따라 적절하게 언어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능력을 강조하고 있다. 예를 들어, "I'll see you later."라는 발화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예상일 수도 있고, 청자에 대한 화자의 약속일 수도 있고, 경고의 의미로 사용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상황에 따라 적절히 이해하는 능력이 중요한 것이다.

실제로 외국어의 언어학적 지식이 정확하게 전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상황에 따른 적절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등 배경지식의 결여로 인하여 의사소통상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이것은 문법과 언어에 대한 지식에 치우쳐 언어수행에서 일어나는 언어적 형태와 사회언어학적 변인들 간의 상호관계 속에서 생겨나는 규칙들을 제대로 습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행을 수행할 때 그 내면에 숨어있는 의미에 의해서 의사소통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학생들에게 주지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Wolfson(1983)에 따르면 원어민 화자들은 의사소통 시 간단한 문법이나 발음 측면에서의 에러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을 두지 않지만 대화상의 공손규칙이나 어조 등의 에러에 대해서는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이에 적절하게 대화가 진행되지 않으면 서로의 오해나 문화차이로 불쾌감을 느끼거나 무례한 사람을 판단해 버릴 수도 있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교실 현장에서 영어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는 언어지식뿐 아니라 이와 같은 사회언어학적 지식에 민감해야 하고 학습자에게 이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교실 수업에서만 영어를 사용하는 EFL 환경의 학습자들은 교실 밖에서도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ESL 환경의 학습자들에 비해 화용적 능력을 기를 기회가 상대적으로 낮다. 또한 교실에서 학습자의 화용적 능력 신장 차원에서 교사가 영어를 주 교수언어로 사용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홍진옥(1999: 221)은 ‘영어의 공손표현과 의미에 관한 비교연구’에서 영어교사는 문법이나 독해력을 가르치는 데 급급하여 상황맥락, 상대방과의 사회적 관계에 따라 적절히 사용하는 공손표현이나 격식을 가르치는 일에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그 결과 언어습득의 초기 단계나 상급 단계의 학습자들이 모두 공손성을 나타내는 언어사용에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위와 같은 우리나라의 영어 학습 환경에서 화용론적 지식을 가르칠 수 있는 수단으로서 교과서의 위치는 더욱 중요해진다. EFL 상황에서 대부분의 형식 교육은 교과서를 통해 이루어지고 또한 학생들이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영어자료도 바로 교과서이므로 교과서의 대화문에서 발화행동에 대한 화용론적 지식을 적절히 제시하는 것은 영어학습자들에게 중요한 입력 자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영어교과서가 의사소통능력의 중요한 부분인 화용론적 요소를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 분석해 보는 것은 실제 교실에서 화용적 능력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간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고등학교 영어회화 교과서에 나타난 대화문이 의사소통능력향상에 필요한 화용론적 특징 및 전략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원어민 저자 회화교재와 비교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영어회화 교과서는 주로 비원어민 저자에 의해 작성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교과서 제작 시 교육과정에 따라 언어형식, 소재, 문화, 언어, 어휘, 문장길이 등에 관하여 참고해야 하는 여러 가지 지침이 많다. 이에 비해 원어민 저자 회화교재는 외부로부터 특별한 제약이나 지침이 없이 학습자로 하여금 효율적인 방식으로 회화능력을 습득하도록 하는 데만 초점을 두므로 영어회화 교과서에 비해 좀 더 원어민의 대화에 나타나는 화용론적 특징을 반영하고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화용론의 주요 개념인 공손, 화행, 대화구조 측면에서 영어회화 교과서를 원어민 저자 회화교재와 비교함으로써 장단점을 파악하여 교과서를 보완, 수정하는데 있어 참고사항으로 제언하고자 한다.

2. 연구의 구성 및 제한점

본 연구는 영어회화 교과서의 화용론적 특성을 분석하기에 앞서 대화상황

과 화제 등을 고려하여 대화 스타일을 분류하였다. 그리고는 대화 스타일에 따라 화용론적 특징, 즉 공손, 간접화행, 대화구조가 어떻게 다른지 분석하고 이를 원어민 저자 회화교재와 비교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교과서와 원어민 저자 회화교재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 있다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규명하여 교과서 대화문의 개선방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을 갖는 데 먼저 고등학교 영어회화 교과서 8종을 모두 조사하지 못하고 4종을 임의로 선정하였고, 원어민 저자 회화교재 역시 3권으로 제한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대화문의 분석의 척도를 정하는데 있어 화용론적 특징 중 일부만을 기준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분석의 대상이 되는 교과서와 회화교재의 대화문은 표준영어로 되어있고 비언어적인 요소들이 제한되어 있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실제 의사소통 상황과는 차이가 있다. 다시 말하면 대화문은 글로 쓰인 자료이므로 실제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는 표정, 제스처, 억양 등과 같은 비언어적 요소들을 관찰할 수 없고 여기에서 오는 화용론적 특성을 알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II. 이론적 배경

이 장에서는 본 연구의 이론적 바탕이 되는 화용적 능력이란 무엇이고, 분석 기준으로 삼은 공손과 체면, 화행이론, 대화와 선호구조의 개념과 관련 연구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화용적 능력

Leech(1983: 1)에 의하면 화용론은 발화가 상황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에 대한 연구이며 문법과는 구별되는 것이라고 한다. 또한 Yule(1996: 3)에 따르면 화용론은 화자의 의미에 관한 연구로 화자가 청자, 장면, 시간, 상황에 따라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어떻게 조직하는가를 고려하는 것이다. 그리고 화자는 청자와 사회적으로 얼마나 가까운가에 따라 어느 정도까지 이야기를 해야 하는가를 결정하기 때문에 화용론은 또한 상대적 거리의 표현을 연구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화용론의 정의에 바탕을 두면 화용적 능력은 문법적 능력과 구별되는 것으로 화자의 의미를 파악하고 상황의 의미를 이해하며 사회적 위치와 사회적 거리를 감지하고 그에 따라 언어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능력이라 할 수 있겠다. 언어사용이 구어적이든 문어적이든 주로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 속에서만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볼 때, 이와 같은 화용적 능력은 학습자의 제2언어 사용능력의 여러 요소 중 가볍게 여길 수 없는 부분이다.

Bachman(1990)은 기존의 의사소통능력을 언어능력(language competence)라 부르고, 언어능력을 크게 조직적 능력(organizational

competence)과 화용적 능력(pragmatic competence)으로 나누었다. 조직적 능력은 문법적 능력(grammatical competence)과 문맥적 능력(textual competence)의 하위 능력으로 구분되며, 문법적 능력은 어휘, 형태론, 통사론, 음운론 등에 관한 지식을 말하고 문맥적 능력은 일관성, 수사적 구조에 대한 지식을 말한다. 이에 비해 화용적 능력은 언어의 사용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언어 사용자나 의사소통상황과의 관계, 즉 사회문화적 맥락을 이해하여 그에 따라 언어를 적절하게 구사하는 능력을 말한다. 이 화용적 능력은 언표내적능력(illocutionary competence)과 사회 언어적 능력(sociolinguistic competence)의 하위 개념으로 구성된다. 언표내적능력은 발화된 언어형태에 내재된 궁극적 목적 및 의도된 의미를 주고받을 수 있는 능력으로 화행(speech act)과 언어기능(language function)을 말하고, 사회 언어적 능력은 특정 언어를 사용하는 사회 문화적, 담화의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수행하는 능력을 말한다.

또한 Thomas(1995)는 화용적 능력을 특정 의도를 성취하고 언어를 상황 속에서 이해하기 위해서 언어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능력이라 정의했다. 따라서 화용적 능력은 결국 의사소통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 화자와 청자가 사용하는 지식으로 의사소통이 발생하는 상황적 맥락과 사회문화적으로 적절한 발화수반행위에 관한 지식이다.

현재 우리나라 영어교육이 의사소통능력을 중시하는 제 7차 교육과정 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실 현장에서는 의사소통능력의 중요한 일부인 화용적 능력보다도 문법적 능력에만 치중하여 문법적으로 정확한 문장을 사용하는 것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경향이 있다. Williams(1981: 28)가 한 언어를 사용할 줄 안다는 것은 그 언어의 문법적인 문장을 만들어 내는 것 이상이라고 말한 것처럼 만약 학습자가 다양한 요청의 표현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화제, 장면, 대화자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표현을 모르거나 여러 표현을

부적합한 상황에 사용한다면 이것은 언어를 제대로 사용한다고 말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제 7차 교육과정의 영어교육 목표처럼 제 2언어 학습의 궁극적 목적이 학습자가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하여 대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제 2언어를 교수할 때 의사소통능력의 중요한 요소인 화용적 능력의 신장에도 강조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본 논문에서는 교실수업의 주된 입력자료 중의 하나인 교과서가 학습자의 화용적 능력 향상을 위해 적절한 대화문을 제시하고 있는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다.

2. 화용론의 주요 개념

1) 공손과 체면

대화를 할 때 사회적 또는 도덕적 특성과 관련되는 공손함(politeness)의 개념이 있다. 이것은 대화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효율적으로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공손함은 체면(face)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Lakoff(1973)는 의사소통 과정에서 성인들이 지켜야 하는 공손함의 규칙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유롭게 선택하고 행동하도록 하라는 것과 상대방을 대우하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Lakoff의 개념을 Brown and Levinson(1978)은 좀 더 구체화하여 체면을 적극적 체면(positive face)과 소극적 체면(negative face)으로 구별하였다. 적극적 체면은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 하는 소망이며, 소극적 체면은 타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 자율성을 갖고 싶어 하는 소망을 가리킨다.

대화 참여자들은 자신의 체면은 물론 상대방의 체면을 세워 주어야 하지만 우리가 대화하는 도중 상대방의 체면을 위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기도 한다. 예를 들어 명령, 요청, 제안, 충고 등이 소극적 체면을 위협하는 행위이고 의견의 불일치, 비난, 말참견 등이 적극적 체면을 위협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그래서 화자는 자신의 발화로 인하여 상대방의 체면이 위협당할 가능성이 있을 때, 공손전략을 사용하여 체면협박행위로부터 상대방의 체면을 지켜주는 체면보호행위를 수행하려고 한다. 이러한 공손전략은 상대방과의 공동의 목표 혹은 우정에 호소하거나 상대방과의 친근감을 강조하는 적극적 공손(positive politeness)과 행동의 자유를 방해받지 않으려 하는 청자의 소극적 체면을 지켜주는 소극적 공손(negative politeness)으로 나뉜다.

- (1) a. Goodness, you cut hair! By the way, I came to borrow some flour.
- b. How about lending me this old heap of junk?
- c. Could you possibly by any chance lend me your car for just a few minutes?
- d. I'm sorry to bother you, but can I ask you for a pen or something?

(1a)는 청자에 관심을 보이는 방법으로, (1b)는 농담을 사용하여 청자와의 친밀한 관계를 가정해서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요청으로 인한 체면위협행위를 최소화하는 적극적 공손전략이 사용되었다. 반면, (1c)와 (1d)는 강제성을 피하기 위해 요구내용을 직접 표현하지 않고 의문형이나 사과의 형태를 사용하는 소극적 공손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체면유지노력이 클수록,

청자에게 부담을 적게 줄수록, 간접표현의 요소가 많을수록 더 공손한 발화가 된다. 대부분의 영어권에서 체면보호행위는 보통 소극적 공손전략을 통해서 행해지고 있고, 가장 많이 쓰이는 형태가 (1c)에서와 같이 조동사를 포함한 의문문 형태이다. 이런 의문문들은 직접적인 명령문에 대해 거절할 때처럼 강한 거부감을 주지 않고 거절할 수 있는 기회를 청자에게 제공해 준다.

타인의 체면을 보호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잠재적으로 위험성을 내포한 행위를 멈출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사전연쇄 (pre-sequence) 전략이 있다. 예를 들어 화자는 대화 시작과 함께 바로 요구 행위를 하기 보다는 다음에서 볼 수 있듯이 선 요구(pre-request)를 하여 (2)에서처럼 청자로 하여금 대화를 계속 진행하게 하게 할 수도 있고, (3)에서처럼 대화를 멈추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2) A: Are you busy? (=pre-request)
B: Not really. (=go ahead)
A: Check over this memo.(=request)
B: Okay.(=accept)

- (3) A: Are you busy? (=pre-request)
B: Oh, sorry. (=stop)

(3)의 대답은 화자로 하여금 청자가 응낙해 줄 수 없는 요구행위를 더 이상 못하게 해주기 때문에 청자가 거절을 해서 체면이 손상될 상황까지 가지 않게 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화문에서 상대방의 체면을 보호하는 행위로 어떤 공손전

락을 사용하고 있고, 사전연쇄의 양상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2) 화행이론

언어와 맥락과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를 하는 분야가 화용론(pragmatics)이라면 화행이론(speech act)은 이 중에서 다양한 언어 환경에 따라 언어사용이 어떻게 달라지는가에 대한 연구이다.

Austin(1962)은 발화행위를 발화의 표면적 의미인 언표행위(locutionary act), 그 행위 이면에 내포된 숨은 뜻을 지닌 행위인 언표내적행위(illocutionary act), 그리고 숨은 뜻을 청자가 알아차리고 실제 행동으로 나타내는 언표달성행위(perlocutionary act)로 구분했다. 예를 들어, "Do you know where the post office is?"라는 발화의 언표행위는 문자 그대로 우체국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냐는 질문이다. 하지만 청자가 만약 단순히 알고 있다는 의미로 "Yes"라고 대답해 버린다면 대화가 어색해질 것이다. 여기서 화자가 의도하는 언표내적행위는 우체국 가는 길을 알려달라는 요청이고, 이 말을 듣고 청자가 길을 알려주는 것이 언표달성행위이다.

화행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언표내적행위이며 이것은 명령하거나 요청하거나 또는 경고하는 등의 어떠한 수행력(force)을 지닌다. 단순히 어휘나 문법구조에 나타나 있지 않은 의미, 즉 화자의 의도에 해당하는 의미가 언표내적 수행력이고 이것이 무엇인지 잘 파악하는 것이 성공적인 대화로 이끌 수 있는 지름길이다.

발화가 지닌 언표내적 수행력이 무엇인가에 따라 Searle(1979: 12-20)은 화행의 기능을 묘사(representatives), 지시(directives), 언약(commisives), 표현(expressives), 선언(declarations)의 5가지 범주로 구분하였다. 묘사는

화자가 어떤 것을 사실로 믿는지, 아닌지에 관해 서술해 놓은 행위로 사실에 대한 진술(statement), 단언(assertion), 서술(description)등이 이에 해당하고, 지시는 화자가 누군가로 하여금 무엇을 하게 시키는 언어행위로 화자가 원하는 것을 표현하는 명령(command), 요구(request), 제안(suggestion)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언약은 화자가 자신의 의도를 표현하여 스스로를 미래 행위에 구속시키는 것으로 약속(promise), 협박(threat), 거절(refusal)등이 이에 속하고, 표현은 화자가 감정적으로 느낀 것을 진술하는 행위로 기쁨(pleasure), 고통(pain), 슬픔(sorrow) 등 심리적 상태에 대한 서술이다. 마지막으로 선언은 발화에 의해 세상에 변화를 가져오는 행위들을 가리키는데 화자가 선언적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그에 적합한 제도적 역할을 부여받아야 한다. 이상 다섯 가지 화행의 종류의 구체적인 예는 각각 다음과 같다.

- (4) a. The earth is flat. (묘사)
- b. Could you lend me a pen, please? (지시)
- c. I'm going to get it right now. (언약)
- d. I'm really sorry! (표현)
- e. priest: I now pronounce you husband and wife. (선언)

이 논문에서는 Searle(1979)의 분류방법에 따라 대화문의 특정 발화가 어떤 언표내적 수행력을 지닌 화행인지 살펴보고, 기능의 분포에 있어서 교과서와 원어민 저자 회화교재 사이에 차이점이 있는지 비교해 보겠다.

한편 화행에 있어서 의도를 명시적으로 표현하느냐의 정도에 따라서 화자는 의도를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간접적으로 드러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집에 찾아온 손님이 이제 그만 돌아갔으면 하는 화자의 의도를 전달할 때에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Bachman,

1990: 91-92).

- (5) a. I request that you leave now.
- b. Leave!
- c. I can't stand your company anymore.
- d. It's nearly midnight.

(5a)에서와 같이 어휘 자체에서 언표내적수행력을 표현할 수 있는 동사 'request'를 직접 사용하거나, (5b)에서처럼 명령문을 쓰는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화자의 의도를 표현한 경우이다. (5c)는 (5a)와 (5b)보다는 덜 직접적이지만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할 위험이 있는 발화이고 (5d)는 가장 간접적이다. 위의 예문에서 볼 수 있듯이 화행은 의도를 전달할 수 있는 방식이 여러 가지이고 화자는 자신의 의도와 생각을 공손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간접적이거나 암시적인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발화가 간접화행(indirect speech act)이다.

간접화행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바로 표현하는 직접화행(direct speech act)과는 달리, 요구나 요청의 발화를 할 때 "Pass me the salt"라는 명령형을 피하고 "Can you pass me the salt?", "Where is the salt?"와 같은 의문형이나, "I am trying to find out where the salt is."와 같은 서술형을 사용한다. 이와 같이 문장의 구조(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감탄문)와 일반적 의사소통의 기능(진술, 질문, 명령, 요구 등) 사이에 직접적 관련이 있을 때 이를 직접화행이라 하고, 둘 사이에 간접적 관계가 있을 때 간접화행이라 한다. 따라서 요구에 사용된 명령문은 직접화행이 되고 요구에 사용된 의문문, 평서문은 간접화행이 되는 것이다.

3) 대화와 선호구조

대화구조에는 기계적이고 자동적으로 짝지어 나타나는 인접쌍(adjacency pairs)이 있는데, 각각 다른 화자들에 의해 발화되는 첫 번째 부분(first part)과 두 번째 부분(second part)으로 구성되어 있다. (6)에서 보는 것처럼 인접쌍에서 첫 번째 부분의 발화는 두 번째 부분의 발화를 예상하게 한다.

- (6) a. A: What time is it? (질문) B: About eight-thirty. (답변)
b. A: Thanks. (감사) B: You're welcome. (대답)
c. A: Could you help me with this? (요청) B: Sure. (수락)

그러나 모든 첫 번째 발화 다음에 두 번째 발화가 즉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흔히 한 ‘질문-답변’ 연쇄 사이에 다른 ‘질문-답변’의 쌍이 끼어들어 ‘질문1-질문2-답변2-답변1’의 구조가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때 중간의 ‘질문2-답변2’를 삽입연쇄(insertions sequence)라 한다.

- (7) Agent: Do you want the early flight? (질문1)
Client: What time does it arrive? (질문2)
Agent: Nine forty-five. (대답2)
Client: Yeah-that's great. (대답1)

(7)에서 볼 수 있듯이 비록 질문1에 대한 응답으로 질문2가 제시됐을지라도 일단 삽입연쇄의 두 번째 부분인 대답2가 제시되어야 처음 질문1의 대답2가 뒤따르는 것이다.

인접쌍은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사회적 행동을 나타내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B: Oh-eh-I'd love to-but you see-I-I'm supposed to get this finished-you know.

위에서 두 번째 발화자는 거절행위를 할 때, 우선 초대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 일종의 긍정표현(I'd love to)을 사용한 후, 상대방의 이해를 환기(you see)시키면서 초대에 응할 수 없는 이유와 설명을 제시(I'm supposed to get this finished)하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초대자의 이해를 환기(you know)시키고 있다. 이처럼 선호적인 대답은 친밀감과 빠른 연결로 나타나는 반면 (9)에서처럼 비선호적 구조에서는 두 번째 발화의 길이가 더 길게 나타난다.

이러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대화문에 나타나는 삼입연쇄의 양상과 비선호구조의 분포, 그리고 상대방이 기대하지 않는 대답을 할 때 어떤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Ⅲ. 연구방법

1. 분석 대상

1) 교과서 대화문

본고는 분석의 대상으로 현재 고등학교 영어회화 수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English Conversation 4종을 선정한다. 교과서를 선택함에 있어서 각 단원마다 의사소통 연습을 하기 전 모델로 제시된 대화문이 있는 교과서 중 무작위로 선택한다. 교과서에는 듣기연습을 위한 대화문에서부터 언어형식을 연습하기 위한 대화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길이와 종류의 대화문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말하기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내용중심으로 전개되는 대화문에만 초점을 두고자 한다.

각 교과서별로 살펴볼 대화문은 <표 2>와 같다. 편의상 교과서의 순서는 무작위로 나열하고 앞으로 언급할 시에는 교과서명의 앞 두 글자로만 지칭하도록 한다.

<표 2> 교과서별 분석 대상

출판사	저자	분석 대상	대화문 개수
지학사 (지학)	안병규 외 2명	Core Conversation I, II	36
현대영어사 (현대)	김임득 외 5명	Dialogue in Context 1, 2, 3	36
천재교육	이병민 외 4명	Dialogue 1, 2	24

(천재)			
대한교과서 (대한)	한학생 외 1명	Conversation	16

2) 원어민 저자 회화 교재 대화문

교과서의 대화문과 비교할 대상으로는 원어민에 의해 집필된 영어회화 교재 3권을 선정한다. 회화교재를 비교의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주로 비원어민 저자에 의해 제작된 우리나라 회화 교과서보다는 원어민에 의해 쓰여졌기 때문에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사람들의 화용적 능력을 좀 더 잘 반영할 것으로 보았고, 장단점을 파악하여 교과서를 보완, 수정하는데 있어 참고사항으로 제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원어민 저자 회화 교재는 종류도 다양하고 교재마다 내용과 형식, 강조점 등이 다르기 때문에 비교대상을 선정하는데 있어 인지도 있는 일반적 회화 교재이면서, 대화문의 특징이 가급적 어휘와 문법 등의 언어수준이나 대화의 장소, 내용, 길이 측면에서 교과서의 대화문과 유사한 것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는 원어민 저자 회화교재를 비교대상으로 하여 우리 교과서를 비교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원어민 저자 회화교재의 수는 3권으로 제한하도록 한다. 각 교재별로 살펴볼 대화문은 <표 3>과 같고 편의상 괄호안의 약자를 사용하여 지칭하도록 한다.

<표 3> 원어민 저자 회화교재별 분석 대상

출판사	저자	분석대상	대화문 개수
New Interchange 2 (NI)	Jack C. Richard 외 2명	Conversation	32

Person to Person 1 (PP)	David Bycina 외 2명	Conversation 1, 2	24
Expressway 4 (EW)	Steven J. Monlinsky 외 1명	Interchange	9

2. 분석 기준

1) 대화의 스타일 분류

우선 대화문에 나타나는 화용론적 특징을 분석하기에 앞서 대화의 스타일을 공식적, 중립적, 비공식적 대화로 분류하였다. 공식도(formality)에 따른 분류기준으로는 Joos(1967)가 제시한 대화의 5가지 스타일, 즉 연설적 스타일(oratorical style), 신중한 스타일(deliberative style), 상담의 스타일(consultative style), 비격식스타일(casual style), 친밀한 스타일(intimate style)을 기본으로 하였고 각각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설적 스타일(oratorical style)은 가장 공식적인 언어형태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것은 대화 참여자들에 의한 대화라기보다는 인쇄나 대중적 행사를 목적으로 쓰인 글(text)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문학작품이나 설교, 법정판결 등이 이에 해당하며, 주로 문서로 기록되어 다시 읽을 수 있고 같은 내용이라고 할지라도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그 특징이다.

둘째, 신중한 스타일(deliberative style)은 대화참여자간에 상호작용 없이 화자가 청자에게 일방적인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공식적 대화 형태이다. 정확한 발음과 문법, 생략이 없는 완전한 문장형태 등이 발화의 특징으

로서 강의, 공지, 발표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셋째, 상담의 스타일(consultative style)은 중립적인 대화 형태로 상호간의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목적이고 주로 낯선 사람이나 먼 직장동료 간의 대화가 이에 해당한다.

넷째, 비격식스타일(casual style)은 가족, 친구같이 잘 아는 사람들 사이에 나타나는 비공식적 대화로 교과서와 회화교재에 가장 흔히 등장하는 형태이다. 위의 세 가지 대화 스타일에 비해 비격식스타일은 친한 사람들끼리의 대화이기 때문에 상호간에 공유하는 정보가 많고 생략과 속어가 자주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다.

마지막으로, 친밀한 스타일(intimate style)은 가족, 연인, 절친한 친구 사이의 대화로 대화자들만이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가장 비공식적인 스타일이다. 비격식스타일에 비해 생략, 상징, 속어 등이 많이 사용되는 특징이 있다.

이 중에서 화용론적 요소를 분석하는 데 있어 초점이 될 대화문의 종류는 상담의 스타일(consultative style)과 비격식스타일(casual style)로, 이 2 가지를 각각 중립적 대화, 비공식적 대화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그 이외에 연설적 스타일(oratorical style), 신중한 스타일(deliberative style), 친밀한 스타일(intimate style)을 분석대상에 포함하지 않은 이유는 대화문 분류 결과 거의 나타나지 않은 스타일이기 때문이다.

2) 화용론적 요소

교과서 대화문을 Joos(1967)의 5가지 대화 스타일에 따라 분류한 후 화용론적 측면에서 중립적 대화문, 비공식적 대화문 사이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다. 그리고 원어민 저자 회화교재 역시 같은 기준으로 분류한 후,

이를 교과서와 비교하여 양쪽 교재의 차이점과 장단점을 살펴보도록 한다. 분석에 사용된 화용론적 요소는 다음과 같다.

(1) 간접화행(indirect speech act)

발화의 구조적 형태(structural form)와 의사소통적 기능(communicative function)이 직접적인 관계로 나타나지 않아 발화가 내포하고 있는 언표내적 수행력(illocutionary force)을 파악해야 하는 간접화행이 중립적 대화와 비 공식적 대화에 얼마나 나타나는지 분포도를 살펴본다. 그리고 Searle(1979)이 분류한 화행(speech act)의 5가지 기능을 참고로 하여 발화의 통사적 구조에 따라 각각 어떤 언표내적수행력을 갖는 간접화행인지 분석하도록 한다.

(2) 공손(politeness)

공손전략에 해당하는 적극적 공손(positive politeness), 소극적 공손(negative politeness) 중에서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되고 실제로 교과서의 대화문에 나타나는 소극적 공손전략에 대해 알아본다. 공손함을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발화상황 중에서도 상대방의 체면(face)을 가장 많이 고려해야 하는 요청상황에 제한하여 대화의 공식적인 정도에 따라 소극적 공손전략으로서 어떠한 요청표현들을 사용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3) 사전연쇄(pre-sequence)

사전연쇄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화자의 의도를 미리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언질을 주는 것으로 상대방의 체면(face)에 위협을 가하지 않으려고 하는 공손전략 중 하나이다. 사전연쇄는 사전요청(pre-request), 사전공지(pre-announcement), 사전초대(pre-invitation), 사전제안(pre-proposal) 등

발화의 목적에 따라 다양한 기능으로 나타나는데 교과서와 원어민 회화교재에서는 사전연쇄가 어떠한 기능을 하고 있는지 비교하도록 한다.

(4) 삽입연쇄(insertion sequence)

대화의 스타일은 상황, 대화자, 화제 등에 따라 다를지라도 대화자들은 관습적으로 인접쌍(adjacency pairs)이라는 정형화된 대화구조를 지키며 발화하는 경향이 있다. 다시 말해서, A라는 발화에는 자연적으로 예상되는 대답 B가 따라온다는 것이다. 삽입연쇄는 하나의 대화쌍(질문1-대답1) 사이에 위치한 또 다른 대화쌍(질문2-대답2)으로써 삽입연쇄의 내용에 따라 원래의 대화쌍이 인접쌍으로 나타나지 않고 예상하지 못한 대답으로 이어지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래서 교과서와 원어민 저자 회화교재의 대화문에 나타난 삽입연쇄는 그 내용과 길이에 따라 전체 대화가 인접쌍으로서 기능을 하는데 있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분석한다.

(5) 비선호구조(dispreferred structure)

인접쌍과 마찬가지로 대화에서 보편적으로 지켜지는 선호구조(preference structure)가 있지만, 대화자들이 반드시 선호구조에 따라 발화를 하는 것은 아니다. 교과서에 실린 대부분의 대화문들은 내용의 흐름을 쉽게 예상할 수 있을 만큼 선호구조에 따라 대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선호구조를 따르지 않는 대화문들이 있다. 이러한 대화문들에서 상대방의 발화에 대해 선호되지 않는 대답을 할 때는 어떠한 언어표현을 사용하고 있는지 원어민 저자 회화 교재와 비교하여 알아보도록 한다.

IV. 연구 결과

1. 대화의 스타일

각 교과서와 회화 교재별로 살펴본 대화문의 스타일은 다음 <표 4>와 같다. 대화문은 분류하는 데 있어 중립적 대화와 비공식적 대화의 구분이 모호한 경우도 있었으나, 대화자들의 관계뿐 아니라 화제와 상황 등의 요소도 함께 고려하였다. 예를 들어, 같은 교사-학생간의 대화라고 할지라도 수업과 같이 공식적인 상황에서 나타나는 대화만을 중립적 스타일로 분류하였고, 우연히 만나 안부를 묻는 내용은 비공식적 스타일로 분류하였다. 직장동료간의 대화도 마찬가지로 사장-직원과 같이 직급의 위계가 있는 사람들이 업무내용에 관한 대화를 하는 경우 중립적 스타일로 분류했고, 안부를 묻거나 자신의 고민, 일상생활 등에 관한 이야기는 비공식적 스타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

<표 4> 교과서와 회화교재의 스타일 분류결과

출처 스타일	교과서				회화교재		
	지학	현대	천재	대한	NI	EW	PP
신중한 스타일	0	0	0	0	0	0	0
상담의 스타일 (중립)	17 (47.22)	8 (22.22)	9 (37.50)	13 (18.75)	11 (34.38)	5 (55.56)	12 (50.00)
비격식 스타일	19 (48.72)	24 (66.67)	14 (58.33)	13 (81.25)	20 (62.50)	3 (33.33)	12 (50.00)

(비공식)							
친밀한 스타일	0	0	0	0	0	0	0
상담의+ 비격식	0	4 (11.11)	1 (4.17)	0	0	0	0
신중한+ 비격식	0	0	0	0	1 (3.12)	1 (11.11)	0

위의 표를 살펴보면 교과서 전체적으로 볼 때 비공식적 대화가 차지하는 비율이 중립적 대화가 차지하는 비율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원어민 저자 회화교재에서는 3권 모두 다르게 나타나 특정 스타일의 대화문이 다른 스타일에 비해 많이 분포한다고 말할 수 없다. 이것은 교과서 대화문의 화자가 주로 고등학생 친구들인 데 비해 원어민 저자 회화교재는 고등학생에서 대학생, 성인에 이르기까지 그 폭이 확대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교과서는 동일한 연령의 특정 집단을 위한 교재이기 때문에 고등학생들이 접할만한 상황을 대화문에 제시하여 주로 학생들, 친구들 사이의 대화에 해당하는 비공식적 대화문의 비율이 보다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원어민 저자 회화 교재는 국제어로서 영어를 배우고자 하는 전 세계 영어 학습자를 위해 제작되었기 때문에 보다 다양한 대화 참여자들 간에 나타나는 대화상황을 보여주고 있고, 이에 따라 대화스타일이 차지하는 비율도 교재에 따라 다른 것으로 생각된다.

양쪽 교재별로 중립적, 비공식적 대화문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예는 각각 다음과 같다.

(10) Boss: Would you put those menu away, please?

Amber: Sure. They go here, right?

Boss: Yeah, Right there in that rack so you can reach them

quickly.

Amber: Do I have to carry them around?

Boss: No, Just grab them when you need them. Now, would you show me that you know how to use this cash register?

Amber: OK. Like this, right?

Boss: Good. Now, do you have any questions?

Boss: Just one. Could you show me how to do the telephone reservations again? (지학 p.94)

(11) Jennifer: What are you going to do tomorrow, Mina?

Mina: I'm going to catch up on sleep. How about you, Minsu?

Minsu: I'm going to play tennis with my father.

Jennifer: Oh, do you play tennis? I didn't know that.

Minsu: Yeah, I've been playing tennis I was eight years old.

Jennifer: Really? Then you must be a good tennis player.

Minsu: Well, sort of. Jennifer, do you have any plans for tomorrow?

Jennifer: Not yet. That's why I asked you.

Minsu: How about if you both come to play tennis with me?

Mina: That sounds great! (현대 p.100)

(10)은 업무와 관련하여 사장-직원 사이에 나누는 중립적인 대화에 해당하고, (11)은 친구들끼리 내일 계획에 대해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비공식적 대화에 해당한다.

(12) Uma: Excuse me.

Clerk: Yes? What can I do for you?

Uma: I just checked in, and there's a problem with my room.

Clerk: What's the problem?

Uma: I asked for a non-smoking dorm room, but people are smoking in there. I can't stand it. Could you change my room, please?

Clerk: Let me see... I'm sorry, we don't have any non-smoking rooms available. If you like, could you stay in a private room until we have a non-smoking available. It cost a bit more...

Uma: Yes, that'll be fine.

Clerk: OK, here's your new room key. I'll let you know as soon as we have a bed in a non-smoking dorm room.

Uma: Thanks for your help. (PP p74)

(13) Mr. Field: Jason... Jason! Turn down the TV a little, please.

Jason: Oh, but this is my favorite program!

Mr. Field: I know. But It's very loud.

Jason: OK. I'll turn it down.

Mr. Field: That's better. Thanks.

Mrs. Field: Lisa, please pick up your things. They're all over the living room floor.

Lisa: In a minute, Mom. I'm on the phone.

Mrs. Field: OK. But do it as soon as you hang up.

Lisa: No problem!

Mrs. Field: Goodness! Were we like this when we were kids?

Mr. Field: Definitely! (NI p.34)

(12)는 숙박업소 직원과 손님 사이에 나누는 중립적인 대화이고 (13)은 집에서 가족끼리 일상적으로 나누는 비공식적 대화의 예이다.

대화자, 화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중립적, 비공식적 대화를 분류하기는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이 두 가지 스타일의 대화문이 공식도(Formality)에 따라 언어 변이형이나 전략적 표현과 같은 측면에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공식적인 정도에 따른 표현상의 특징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어휘, 축약 등의 언어변이형이나 반복, 생략 등의 전략표현 등이 대화스타일에 따라 빈도나 양상이 다르다는 것을 좀 더 반영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지적할 만한 것은 대화문 분류기준인 Joos(1967)의 5가지 대화 스타일 중에서 공식적 대화에 해당하는 신중한 스타일과 가장 비공식적 대화에 속하는 친밀한 스타일의 대화문을 양쪽 교재에서 거의 모두 다루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것은 신중한 스타일이 화자가 청자에게 일방적으로 정보를 전달하기 때문에 대화자들 사이에 말 순서(turn-taking)를 통한 상호작용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점에서 대화문으로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친밀한 스타일은 발화의 생략, 상징, 속어 등이 발화의 가장 큰 특징이라는 점에서, 바람직하고 잘 다듬어진 언어만을 다루는 교과서 특성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국정 교과서가 지녀야 하는 공공성을 위해 격식 있는 언어표현의 중요성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영어권 대중들이 사용하는 생생한 언어 자료를 좀 더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살아있는 다양하고 자연스러운 언어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상황에 따른 표현의 차이를 이해하여 의사소

통을 보다 원활히 하고 언어에서 오는 문화적 특성을 잘 이해하는데 있어서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친밀한 스타일의 대화문도 교과서에서 다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고, 신중한 스타일 역시 일방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강의, 공지, 발표와 같은 언어상황은 고등학생들이 충분히 접할 만한 공식적 상황이기 때문에 이 역시 공식적 자리에서 사용되는 언어의 특징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교과서에 실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일부 교과서에서 듣기자료로 기내방송이나 기상예보와 같은 신중한 스타일의 대화문이 나타나기는 했지만 교과서 전체에서 1~2개에 불과하고, 듣기자료의 특성상 한번 듣는데서 그치기 때문에 대화문의 특성을 주의 깊게 살펴보기 힘든 한계가 있다.

원어면 저자 회화교재에서는 공식적, 비공식적 스타일이 함께 나타난 대화문이 많지는 않지만 NI, EW에서 각각 1개씩 있어 공식적 대화문의 특성을 조금이나마 제공해 주고 있다.

(14) Guide: We are now approaching the famous Statue of Liberty, which has welcomed visitors to New York Harbor in 1886.

Andrew: Wow! Look at it!

James: Incredible, isn't it?

Guide: The statue was given to the United States by the people of France. It was designed by the French sculptor Bartholdi.

Andrew: It's really huge. Do we get to go inside?

James: Of course. We can climb the stairs all the way up to the crown.

Andrew: Stairs? There's no elevator?

James: Not to the top. But it's just 142 steps! (NI p.66)

(14)에서는 공식적 대화문에 해당하는 관광가이드의 설명과 비공식 대화문에 해당하는 친구사이의 대화를 함께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이 두 개 이상의 스타일이 함께 나타나는 대화문은 한 가지 대화스타일로 진행되는 대화문보다 공식적인 정도에 따른 발화의 차이를 보다 잘 보여줄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마찬가지로 교과서에서도 중립적, 비공식적 대화 스타일이 함께 나타나는 대화문이 있었다. 하지만 교과서와 원어민 저자 회화교재 모두에서 두 가지 이상의 스타일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는 비율상 매우 적고, 본고에서는 대화의 스타일 따른 화용론적 차이를 연구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앞으로 이어질 연구에는 두 가지 이상의 스타일이 함께 나타난 대화문들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다.

2. 화행과 공손

1) 간접화행(indirect speech act)

교과서와 원어민 저자 회화교재에서 전체대화 중 간접화행이 차지하는 비율은 <표 5>와 같다. 여기서 전체 대화는 한 사람이 한 번의 말 순서(turn-taking)를 갖는 것을 단위로 하여 첫 단원부터 끝 단원까지 교재마다 모두 세었다. 그리고 전체 말 순서 개수에서 간접화행이 나타나는 말 순서가 차지하는 개수와 비율을 표시하였다.

<표 5> 교과서와 회화교재의 간접화행 분포

출처 스타일	교과서				회화교재		
	지학	현대	천재	대한	NI	EW	PP
중립적 대화	20/138 (14.49)	14/76 (18.42)	11/93 (11.83)	5/30 (16.67)	13/88 (14.77)	10/62 (16.13)	27/162 (16.67)
비공식적 대화	16/146 (10.96)	13/203 (6.40)	16/139 (11.51)	15/128 (11.72)	12/146 (8.22)	0/21 (0.00)	10/116 (8.62)
차이 (백분위)	3.53	12.02	0.32	4.95	6.55	16.13	8.05

()안은 백분위 숫자임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율의 차이는 있지만 양쪽교재 모두 비공식적 대화문에서보다 중립적 대화문에서 간접화행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중립적 대화가 비공식적 대화에 비해 대화자 사이의 친밀한 정도가 낮기 때문에 화자는 청자로 하여금 발화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미칠 수 있는 부담을 줄여주려고 하기 때문일 것이다. 즉, 간접화행의 가장 큰 목적이 발화가 지닌 언표내적수행력으로 인해 상대방이 느낄 수 있는 부담의 정도를 완화시키고, 직접화행보다 공손하게 의도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친하지 않은 사람들끼리의 대화에서 간접화행이 더 많이 나타난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본다.

특히 원어민 저자 회화교재에서 중립적, 비공식적 대화문에 나타나는 간접화행의 비율차이가 현대를 제외한 나머지 교과서의 대화스타일에 따른 간접화행의 비율차이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친하지 않은 사이일수록 상대방의 체면과 공손함을 고려하여 발화한다는 간접화행의 특성을 원어민 저자 회화교재가 교과서보다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음은 각 교재별로 어떤 종류의 간접화행이 나타나고 있는지에 관한 분

석결과이다. <표 6-1>, <표 6-2>는 각각 교과서와 원어민 저자 회화교재에서 나타나는 간접화행의 종류를 정리한 것이다. 분석의 과정은 우선 간접화행에 해당하는 발화를 통사적인 형태(syntactic form)에 따라 평서문, wh-의문문, yes/no-의문문, 명령문, 감탄문으로 분류한 후 각각의 발화가 어떤 언표내적수행력을 지닌 간접발화로서 기능을 하는지 살펴보았다. 화행의 종류는 Searle(1979)이 분류한 5가지 화행의 기능을 기준으로 하되 질문(Question)의 기능을 추가하여 분석하였고 표에는 특정 통사구조에서 한 번 이상 나타난 기능만을 표시하였다.

<표 6-1> 교과서 대화문에 나타난 간접화행의 기능

출처		지학		현대		천재		대한	
문장구조-IF	IF	중립	비공식	중립	비공식	중립	비공식	중립	비공식
평서문	D	7	1	4	4	1	5		4
Wh-의문문	D		2	1	3		3		4
	R						1		
	C			1					
Y/N-의문문	D	6	6	5	5	4	4	3	6
	Wh-Q	1	3	2	1	4	3		
	R		1						1
	C	6	1	1		2		2	
명령문	Q		1						
감탄문									

IF=언표내적수행력(Q=Question, D=Directive, R=Representative, C=Commissive, Wh-Q=Wh-Question)

<표 6-2> 회화교재 대화문에 나타난 간접화행의 기능

출처	NI	EW	PP
----	----	----	----

문장구조 IF							
문장구조	IF	중립	비공식	중립	비공식	중립	비공식
평서문	D	3	3	5		7	
Wh-의문문	D	1	4	1		3	5
	R	1	1				
	C						
Y/N-의문문	D	3	4			10	4
	Wh-Q	3		4		3	1
	R						
	C					4	
명령문	Q	1					
감탄문							

IF=언표내적수행력(Q=Question, D=Directive, R=Representative, C=Commissive, Wh-Q=Wh-Question)

<표 6-1>, <표 6-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양쪽교재 모두 어떤 문장구조를 통해서도 선언(declaration)과 표현(expressive)의 기능을 하는 간접화행이 나타나지 않았고 감탄문이 간접화행으로 사용된 경우도 없었다. 또 하나의 공통점으로는 yes/no-의문문에서 간접화행의 종류가 가장 다양하고 그 뒤로 wh-의문문, 평서문, 명령문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많이 나타난 간접화행의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15) 교과서

- a. I think you should also drink lots of water. (평서문:directive)
- b. Why don't you apply this ointment on your finger and put ice on it in the evening? (wh-의문문:directive)
- c. Could you keep it down? (yes/no-의문문: directive)
- d. Do you have any hobbies? (yes/no-의문문:wh-question)
- e. Can I bring anything? (yes/no-의문문:commissive)

(16) 원어민 저자 회화교재

- a. You should write to the mayor and express your opinion.
(평서문:directive)
- b. What do you think of going shopping for shoes?
(wh-의문문:directive)
- c. Would you mind turning your stereo down?
(yes/no-의문문: directive)
- d. Do you know where the binders are?
(yes/no-의문문:wh-question)
- e. Can I help you? (yes/no-의문문:commissive)

차이점으로는 현대를 제외한 나머지 교과서에서는 간접화행의 종류가 중립적 대화보다 비공식적 대화에서 좀 더 다양하게 나타난 반면 원어민 저자 회화교재에서는 중립적 대화에서 더 다양하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또한 그 양상에 있어서도 통사구조가 wh-의문문이고 화행이 의뢰(commisive)의 기능을 하는 간접화행과 yes/no-의문문이 묘사(representative)의 기능을 하는 경우는 교과서에만 찾아볼 수 있었다.

2) 공손표현(politeness)

타인에게 요청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중립적, 비공식적 스타일에 맞게 적절한 공손을 지키며 요청표현을 사용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천재를 제외한 나머지 3개의 교과서에서 비공식적 대화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정중하게 요청하고 있는 표현을 찾아볼 수 있었다. 이에 비해 원어민 저자 회

화교재에서는 세 교재 모두 중립적 대화문에서 요청표현이 많이 사용되었고 대화 스타일에 따라 적절한 공손을 지키며 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교과서와 회화교재별로 나타난 공손표현의 종류와 특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7-1> 지학사

스타일	요청표현
중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uld I ask you a question? · Would you put those menu away, please? · Would you show me that you know how to...? · Could you show me how to do...?
비공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ould you help me lift this desk? · Could you put it on the kitchen table, please? · Can you tell me who that chubby baby is?

지학에서는 중립적, 비공식적 대화문에서 거의 모두 Would you..?/ Could you..?의 형식으로 요청을 하고 있는데 내용상 비공식적 스타일에는 다소 부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비공식 대화상황에서 짐정리를 도와주러 온 친구에게 Could you put it on the kitchen table, please?와 같이 말하는 것은 과도한 공손표현에 해당한다.

<표 7-2> 현대영어사

스타일	요청표현
중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ay I have the check? · Can I take a look at the finger? · Can I try on a green one, pleas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s it okay if I ask some questions? · Can I join your club? · May I talk to Yunmi, please? · Can you tell me where ...?
비공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an you help me study? · Will you do me a favor? · Would you mind if I ask you something? · Will you be able to help me? · If it's not too be inconvenient for you, could you...? · May I speak to Bob, please?

현대는 중립적, 비공식적 대화문에서 거의 모두 Can I...?/ May I...?의 요청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이 교과서에서도 역시 과도한 공손을 사용하는 것을 찾아볼 수 있었는데, 비공식적 스타일에서 친구에게 영어공부를 하는 방법에 대한 질문을 하기 전 Would you mind if I ask you something?이라고 묻는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 반면 원어민 저자 교재에서는 이 표현을 중립적 대화스타일에서 사용하고 있다.

<표 7-3> 천재교육

스타일	요청표현
중립	
비공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an you suggest a dish? · Will you show me how to send a voice...?

천재는 중립적 스타일의 대화문에서는 요청표현이 나타나지 않고 비공식적 스타일의 대화문에서만 Can you...?/ Will you...?의 요청표현이 나타났다.

<표 6-4> 대한교과서

스타일	요청표현
중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uld you tell me how to get to...? · Could you spell that for me, please? · Could you tell him that I won't be able to...? · Can I speak to Mr. Kim, please? · Could you keep it, please?
비공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an you give me some information about...? · Would you hand me that picture in front of you? · Can you tell me how to use it? · Will you run to the store and buy...? · Would you please go to the store?

대한은 중립적 스타일에서 Would you..?/ Could you...?로 요청을 하고 있는 반면, 비공식적 스타일에서는 Would you..?/ Could you...?/ Will you...?/ Can you...? 등의 표현이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여기서 Would you..?/ Could you...?는 부적합한 상황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함께 방을 정리하던 중 언니가 동생에게 그림 좀 건네 달라는 표현을 Would you hand me...?로 요청을 한다거나 엄마가 아들에게 심부름을 시킬 때 Would you please...?라고 말하는 것은 과도한 공손표현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위에서 지적한 대로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 would/could you...?와 같이 다소 정중한 표현을 사용하여 요청하는 것이 항상 부적절한 것은 아니다. 친한 사람들끼리도 would/could you...?와 같은 표현을 사용할 수 있지만 상황과 요청하는 내용의 상대방에게 미치는 부담의 정도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과서에서 과도한 공손표현이라고 지적한 상황에서는 요청의 정도가 상대방에게 큰 부담이 될 만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덜 정중

한 표현이 보다 자연스러울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가족이나 아주 친한 친구 사이에 가벼운 부탁 같은 것을 할 때 너무 정중하게 요청하는 것은 둘 사이의 친밀감을 오히려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교과서는 전반적으로 중립적, 비공식적 대화문 모두에서 요청표현이 고루 사용된 반면, 원어민 저자 회화교재에서는 3권 모두 중립적 스타일의 대화문에서 거의 나타났다.

<표 7-5> New Interchange 2

스타일	요청표현
중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an you give me some lessons? · Can you tell me how often the buses ...? · Could you tell me where the bank is? · Would you mind turning your stereo down?
비공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an I move in with you for a few days? · Can you bring some soda?

NI에서 Can you/ Can I...?와 같은 표현은 양 쪽 스타일 모두에서 나타나지만 Would you mind...?/ Could you...?는 중립적 스타일에서만 사용하고 있다.

<표 7-6> Expressway 4

스타일	요청표현
중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uld I ask you how much that will cost? · If you don't mind, I'd just like to get ... · May I ask where you work? · Could you tell me wha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ould you happen to know...? · Would you tell me the name...? · I was wondering if I might possibly offer a suggestion.
비공식	

EW는 요청표현이 중립적 스타일에서만 나타나고 있고 모두 사회적으로 거리가 먼 사람들 사이에서 사용될 만한 공손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표 7-7> Person to Person 1

스타일	요청표현
중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uld I have your name, please? · Could I please have your address? · Could I speak to Masato, please? · Could you help us? · Could you help me? · Could you tell me what the gazpacho is? · Could you change my room please? · Can I book a table for this weekend?
비공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uld you give this to her for me? · Could you lend me some money? · Do you think I could borrow your cell phone?

마지막으로 PP에서는 중립적, 비공식적 스타일 양쪽에서 모두 Could you(I)...?를 거의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지학에서 지나친 공손전략이라고 지적한 Could you...?의 표현이 PP의 비공식 대화문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지만 그 내용상 돈이나 핸드폰을 빌리는 등의 어려운 부탁에 속하기 때문에 Could you...?로 요청하는 것이 과도한 공손을 나타내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3. 대화구조

1) 사전연쇄(pre-sequence)

교재와 스타일 별로 나타난 사전연쇄의 종류와 기능은 <표 8>과 같다. 괄호 안의 내용은 해당하는 사전연쇄의 기능이 나타나는 상황을 설명 한 것으로 사전연쇄가 목적으로 하는 발화행위라고 볼 수 있다.

<표 8> 스타일별 사전연쇄의 종류와 기능

스타일 출처	중립적	비공식적
지학	· pre-request (길을 묻기 전)	· pre-announcement (날씨에 대해 묻기 전)
현대		· pre-request (시험공부를 도와줄 것을 요청 하기 전) · pre-request (영어공부를 도와줄 것을 요청 하기 전) · pre-proposal (쇼핑 제안 전) · pre-proposal (주말 약속 제안 전)
천재		
대한	· pre-request	· pre-proposal

	(길을 묻기 전)	(동아리가입 제안 전) · pre-invitation (생일파티 초대 전)
NI	· pre-request (음악소리를 줄여달라는 요청 전)	· pre-announcement (새로운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 · pre-proposal (생일파티계획을 제안하기 전) · pre-invitation (집에 초대하기 전)
EW	· pre-proposal (근무환경에 관한 개선방안 제안 전)	
PP		· pre-proposal (생일에 함께 할 일을 제안하기 전) · pre-proposal (주말 약속 제안 전) · pre-proposal (새로 생긴 음식점에 갈 것을 제안하기 전)

사전연쇄가 전혀 나타나지 않은 천재교육을 제외한 나머지 교과서에서는 최소한 두 종류 이상의 사전연쇄가 나타나고 있는 반면, 원어민 저자 회화 교재에서는 NI를 제외한 나머지 교재에서 모두 선 제안(pre-proposal)의 형태로만 나타나고 있어 교과서가 좀 더 다양한 사전연쇄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특이한 사항은 양쪽 교재에서 모두 비공식적 대화문에서 사전연쇄가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사전연쇄가 상대방의 체면을 고려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부정적인 대답을 회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목적으로 사용

된다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양쪽 교재 모두 친밀한 사이일수록 사전연쇄를 통해 상대방이 체면을 지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교과서와 원어민 저자 회화교재에 나타난 사전연쇄의 대표적인 예는 각각 다음과 같다.

(17) Minsu: Are you busy today? (=pre-proposal)

Jennifer: Well, I have to do my laundry in the dormitory.

But, I'll be free after 2:00 (=go ahead)

Minsu: I was wondering if you'd like to go shopping with me
this afternoon. (=proposal)

Jennifer: I'd love to. Thanks for asking. (=agree)

(현대 p.80)

(18) Gary: Excuse me, I'm new to the neighborhood. Could I ask you
a question? (=pre-request)

Semin: Sure, go ahead. (=go ahead)

Gary: I want to mail this letters, but I have no idea where to
find a post office. (=request)

Semin: Well, I'm on my way out. I'll show you where it is.
(=accept)

(지학 p.12)

(17)에서 화자는 바로 제안의 행위를 하기 보다는 선 제안을 통해 상대방에게 제안이라는 발화행위를 미리 차단할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이때 청자는 대화를 멈추게 할 수도 있고 위와 같이 계속하라는 신호(go ahead)를 보

내 대화를 진행시킬 수도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18)에서도 본격적인 요청을 하기 전에 선 요청을 먼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19) Masato: Listen, have you heard about the new Thai restaurant
over on University Avenue? (=pre-proposal)

Debby: Do you mean The Bangkok? (=go ahead)

Masato: That's the one. A bunch of us are going over there for
dinner tomorrow night. How about coming with us?
(=proposal)

Debby: Sure. I'd love to. (=agree)

(PP p.44)

(20) Albert: Uh, are you doing anything on Saturday night?
(=pre-invitation)

Daniel: Hmm. Saturday night? Let me think. Oh, yes.

My cousin just called me he was flying in that night.

I told him I would pick him up. (=probably not possible)

Albert: Oh, that's too bad. It's my birthday.

I'm having dinner with Amanda, and I thought I'd invite
more people and make it a party. (=invitation)

Daniel: Gee, I'm really sorry, but I won't be able to make it.
(=refuse)

(NI p.100)

(19)는 (17)과 마찬가지로 제안 전, 선 제안을 먼저하고 있고 (20)에서는

선 초대에 Daniel이 수락하지 않을 가능성을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Albert는 초대의 발화를 계속하고 있다. 이것은 비록 두 번째 발화자가 거절의 가능성을 보였다 하더라도 초대의 내용에 따라 수락할 수도 있다고 첫 번째 발화자는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2) 삽입연쇄(insertion sequence)

교과서와 원어민 저자 회화교재 모두 삽입연쇄는 많이 나타나지 않았다. 지학 3개, 현대 3개, 대한 2개, NI 1개, PP 2개의 대화문에서 각각 다른 양상의 삽입연쇄를 찾아볼 수 있었다.

양쪽 교재의 공통점으로는 첫째, 모두 제안, 요청을 하는 대화 쌍에 삽입연쇄가 나타났다는 점, 둘째, 삽입연쇄의 내용에 따라 대화쌍이 비선호구조(제안-반대, 요청-거절)로 구성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 (21) Minsu: Have you ever been to the palace near here? (Q1)
Jennifer: You mean the one near City Hall? (Q2)
Minsu: Yes, that's the one. (A2)
Jennifer: I've seen the outside of it, but I've never been inside.
(A1)
(현대 p.146)

- (22) Sunya: Could you lend me some money? (Q1- 요청)
Uma: How much do you need? (Q2)
Sunya: Oh... about \$30.00. (A2)
Uma: I don't have that much on me right now. (A1-거절)

(PP p.70)

(21), (22)는 양쪽 교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대화구조로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삽입연쇄가 나타난다. (21)에서는 Q1에 대답이 바로 나타나지 않고 Q1에 대한 응답으로 제시된 Q2에 대한 대답이 먼저 제시되어야 Q1에 대한 대답이 뒤따르는 것이다. (22)는 구조적인 측면에서는 (21)과 같지만 조건의 기능을 하는 삽입연쇄의 내용에 따라 Q1과 A1이 요청-거절이라는 비선호 구조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차이점으로는 첫째, 원어민 저자 회화교재에서는 삽입연쇄가 친구 사이의 대화에서만 나타난 반면, 교과서에서는 옷가게, 음식점, 약국, 학교, 집, 전화 상황 등에서 부부, 이웃, 친구, 점원-손님, 부모-자식 사이의 다양한 관계에서 나타났다는 점이다. 둘째, 원어민 저자 회화교재에서는 모든 삽입연쇄가 가장 기본적인 대화형식인 A:질문1-B:질문2-A:대답2-B:대답1(2개의 대화쌍)에 삽입되어 나타난 반면, 교과서에서는 이러한 기본적인 대화형식 뿐 아니라 삽입연쇄가 보다 길게,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23) Man: Please ask her to call Bill Adams at Towns Bank.

(Q1-요청)

Amber: Does she have your number, Mr. Adams? (Q2)

Man: Probably, but let me give it to you, just in case.

It's 555-9735. (A2)

Amber: I'll read it back to you:555-9735. Is that correct? (Q3)

Man: Yes. that's correct. (A3)

Amber: All right. I'll make sure she gets the message. (A1-수락)

(지학 p.173)

(24) Miran: Why don't you join our club? (Q1-제안)

Jihun: Can you give me some information about your club? (Q2)

Miran: Sure. We get together once a week and chat in English.
 We also watch movies in English and discuss current events in English too. (A2)

Jihun: Sound great. I'm afraid my English isn't good enough though. (Q3)

Miran: No problem. Just come to a meeting and see if you like it. (A3)

Jihun: Maybe I should. But, out of curiosity, what other clubs do you know about? (Q3)

Miran: Well, I've heard that there are sports clubs, music clubs, and other language clubs. But give our club a chance first! (A3&제안반복)

(대한 p.22)

(23)에서는 삽입연쇄가 두 개의 대화쌍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고 (24)에서는 Q1에 대한 대답은 나타나지 않은 채 삽입연쇄에 의해 대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대화가 길어지는 것은 Q1에서 하고 있는 제안에 상대방이 흔쾌히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제안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24)는 화자가 기대하는 대답과 청자가 제공하는 대답 사이에 거리가 클 경우 반응의 지연이 길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분석결과 양쪽 교재 중 어느 한쪽에 삽입연쇄가 더 많이 나타났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교과서가 보다 더 다양한 삽입연쇄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3) 비선호구조(dispreferred structure)

양쪽 교재의 대화문 중 대부분이 선호구조에 따라 대화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비선호구조가 많이 나타나는 편은 아니다. <표 9>에 따르면 교과서와 회화교재에 나타난 비선호구조의 비율은 각각 평균 14.41%, 23.66%로 회화교재에서 더 많이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9> 교과서와 회화교재 대화문의 비선호구조 분포

출처 비율	교과서				회화교재		
	지학	현대	천재	대한	NI	EW	PP
대화문 개수	5	6	2	3	11	1	6
백분위	13.89	16.67	8.33	18.75	34.38	11.11	25.00

교과서와 원어민 저자 회화교재에 나타난 비선호구조는 첫 번째 발화(first part)와 두 번째 발화(second part)로 구성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25)에서 Jennifer는 상대방의 제안에 대해 아니오(no)라고 말하지 않고, 우선 서두(oh)와 제안에 대한 긍정의 표현(I'd love to)을 사용한 후, 제안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I've already made plans for that day).

(25) Mina's Father: This Saturday we'll be visiting my mother's

house in the countryside. Would you care to
join us? (=first part)

Jennifer: Oh, I'd love to, but unfortunately I've already made
plans for that day. (=second part) (현대 p.50)

(26) Inho: Korean men usually don't do any housework. They're
different from American men.

Bob: Not really. My father never did any housework until my
mother started to work. (천재 p.174)

(27) Chris: A garage sale. They're common in the United States. On
weekends, people sell used things out of their garages.

Miran: I'm not sure if I would buy used stuff. (대한 p.54)

(26), (27)은 모두 상대방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대화쌍으로 (26)에서는 Bob은 상대방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다소 완화시킨 부정어(not really)를 사용하고 있고 (27)에서 Miran은 의심표현(I'm not sure)을 사용하고 있다. 다음은 원어민 저자 회화교재에 나타난 표현방법들을 살펴보자.

(28) Karen: Great. Uh, Masato, would you like to see the Rocket
Dogs on Thursday night? They're at the Garage club.

Masato: Oh, I'm sorry, Karen, but I can't. I have to work late
this Thursday. (PP p.48)

(29) A: Grammar rules are the most important things to learn in a new language. Don't you agree?

B: Well, I wish I could agree with you, but if you ask me, conversation practice is much more useful than studying grammar rules. (EW p.172)

(28)은 상대방의 제안에 대해 서두(oh)와 사과의 표현(I'm sorry)을 한 후 의무(I have to work late this Thursday) 때문에 자신의 환경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 (29)에서는 동의를 구하는 A에게 서두(well)를 시작으로 자신의 의견을 말하기 까지 입장을 길게 설명하고 있다(I wish I could agree with you, but if you ask me). 이와 같이 비선호구조를 나타내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교재마다 조금씩 다른 전략들로 구성되어 있다.

<표 10> 비선호를 나타내는 표현방법

표현방법	지학	현대	천재	대한	NI	EW	PP
지연/망설임 (pause; er; em; hmm)					1		1
서두 (well; oh)	2	1	1	1	1	1	
의심표현 (I'm not sure; I don't know)	1			1	1	1	
표지 Yes (So do I; I'd love to)		1					1
사과 (I'm sorry; what a pity)		1					1
의무 언급 (I must do X, I'm supposed)		1			1		
설명 제시		1					1

(much work; no time left)							
완화표현 사용 (actually; kind of; sort of)		1			1	1	1
부정 포함 (I don't think so; not really)		1	2		2		

()는 해당표현의 예를 나타냄

<표 9>는 대화쌍이 비선호구조를 이루고 있을 때 두 번째 발화(second part)를 하는 화자가 사용하는 표현방법을 정리한 것이다. 교과서에 비해 원어민 저자 회화교재에서 비선호구조가 많이 나타나는 만큼 비선호를 나타내는 표현방법 역시 현대를 제외하고는 회화교재에서 보다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V. 결론 및 제언

지금까지 본 논문을 통해 고등학교 영어회화 교과서 4종과 원어민 저자 회화교재 3종에 실린 대화문을 화용론적 관점에서 분석해 보았다. 대화 스타일에 따른 화용론적 차이도 있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대화문 분류를 선행하였고, 교과서의 대화문에서 실제 원어민들의 대화에 나타나는 화용론적 특징을 찾을 수 있는지 알아보는 분석의 기준으로는 간접화행, 공손표현, 사전연쇄, 삽입연쇄, 비선호구조 전략을 채택하였다. 이를 원어민 회화 교재와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대화 스타일 분류 결과 교과서 전체적으로 볼 때, 비공식적 대화가 차지하는 비율이 중립적 대화가 차지하는 비율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화문 분류기준인 Joos(1967)의 5가지 대화 스타일 중에서 가장 비공식적 대화에 속하는 친밀한 스타일의 대화문은 찾아볼 수 없었고, 공식적 대화에 해당하는 신중한 스타일 역시 본고의 분석대상에서 제외되는 듣기 스크립트에 1~2개 나타난 것을 제외하고는 말하기 연습 전 의사소통모델로 제시된 것은 없었다.

간접화행의 분포를 살펴보면 양쪽교재 모두 비공식적 대화문에서보다 중립적 대화문에서 간접화행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중립적, 비공식적 대화문에 나타나는 간접화행의 비율차이는 교과서에서보다 원어민 저자 회화교재에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나 후자가 상대방의 체면과 공손함을 고려하는 간접화행의 특성을 더 잘 보여주고 있다. 그 양상에 있어 양쪽 교재 모두 yes/no-의문문에서 간접화행의 종류가 가장 다양했고, 차이점으로는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간접화행의 종류가 중립적 대화보다 비공식적 대화에

서 좀 더 다양하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공손측면에서 요청표현을 분석한 결과 원어민 저자 회화교재에서는 중립적 대화문에서 요청표현이 많이 사용되었고 적절한 공손을 지키며 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비공식적 대화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정중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대화구조 측면에서는 우선 교과서에 두 종류 이상의 사전연쇄가 나타났고 삽입연쇄 역시 원어민 저자 회화교재에서는 친구사이의 대화에서만 나타난 반면, 교과서에서는 보다 다양한 관계의 사람들 사이의 대화에서 좀 더 길게 나타났다. 그리고 비선호구조의 비율은 교과서와 원어민 저자 회화교재에서 각각 14.41%, 23.66%로 회화교재에서 더 많이 찾아볼 수 있었고, 이에 따라 기대하지 않는 대답을 할 때의 표현방법도 회화교재에서 더 다양한 전략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상과 같은 분석을 토대로 화용적 능력 신장 측면에서 영어회화 교과서의 대화문이 가지는 한계를 수정, 보완하기를 바라며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영어회화 교과서에서 신중한 스타일과 친밀한 스타일의 대화문이 좀 더 다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학습자들이 상황의 공식적인 정도에 따른 대화 스타일의 차이를 인식하고 그에 따라 적절히 의사소통하기 위해서는 강의, 공지, 발표와 같이 학생들이 충분히 접할 수 있는 신중한 스타일과 친한 사람들 사이에 흔하게 나타나는 친밀한 스타일의 대화문도 제공하여 다양한 대화스타일의 특징을 배울 수 있게 해야 한다.

둘째, 비공식적 스타일로 분류된 대화문은 실제 비공식적 대화의 특징을 좀 더 반영하여 격식을 낮출 필요가 있다. 교과서의 중립적, 비공식적 대화문 사이에 간접화행의 분포도 차이가 원어민 저자 회화교재에서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화의 공식적인 정도에 따른 표현방

식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축약과 같은 언어 변이형이나 생략, 반복과 같은 전략적 표현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아무리 교과서의 공공성을 위해 격식 있는 언어표현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대화문의 진정성, 즉 원어민들의 대화와 보다 가까운 살아있는 언어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비공식적 대화문의 공식적인 정도를 낮춰야 할 것이다.

셋째, 비공식적 대화에서 너무 정중하게 나타난 요청표현을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가족이나 친구같이 잘 아는 사이끼리 가벼운 부탁을 할 때 지나치게 공손한 태도는 어색하기도 하고 둘 사이의 친밀감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비공식 대화에서는 어려운 부탁을 하는 상황이 아닌 이상 지나친 소극적 공손전략은 자제하고, 적극적 공손전략같이 친밀함을 강조하는 요청표현이 함께 나타나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러울 것이다.

또 다른 언어를 안다는 것은 언어가 사용되는 사회문화적 맥락을 이해하고 상황에 따라 적절한 표현을 사용할 줄 아는 화용적 능력을 포함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교과서에서 너무 매끄럽게 잘 다듬어진 대화문을 제공하려고 하기 보다는 화용적 측면에서 원어민의 대화상황을 좀 더 반영하는 대화문을 제공하여 학습자의 의사소통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 교육부. (1997).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영어)*. 서울: 대한 교과서.
- 오상욱. (1999). *현행 중학교 영어교과서에서의 대화문의 화용적 연구*. 충남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유제명. (1999). 우리나라 중등학교 영어 교과서의 대화식 영어와 원어민의 대화식 영어의 비교. *영어교육* 54, 2, 133-148
- 이상철. (2006). *영어 담화상에 나타난 간접화행에 관한 연구*. 충남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성림. (1990). *고등학생들의 영어 대화능력과 영어 교과서의 Dialog의 내용에 관한 연구; 표현의 function과 Style을 중심으로*. 서울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성범. (2001). *추론의 화용론*. 서울: 한국문화사.
- 이정열. (2007). *Authenticity of Middle School English textbooks and Spoken Discourse Features*. 성균관대 TESOL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주희중. (2000). *Towards an extended model of politeness*. 서강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홍진옥. (2000). 영어요청 화행의 공손성 책략에 관한 비교 연구. *인문사회과학논총*, 7(1), 293-330.
- Aarts, B (2001). *English Syntax and Argumentation*. Palgrave Macmillan.
- Austin, J. L. (1962/75). *How to Do Things with Words*. Oxford: Clarendon Press.
- Bachman, L. F. (1990). *Fundamental Consideration in Language Testing*.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Brown, G. & Yule, G. (1983). *Teaching the Spoken Langua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Brown, P. & Levinson, S. D. (1987). *Politeness: Some Universals in
Language Usa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nale, M. & Swain, M. Theoretical Bases of Communicative Approaches
to Second Language Teaching and Testing. *Applied Linguistics*
1, 1-47.

Joos, M. (1967) *The Five clocks*. New York: Harcourt, Brace&World

Leech, G. N. (1983). *Principles of Pragmatics*. New York: Longman.

Parker, F. & Riley, K. (2005) *Linguistics for Non-linguists*. Pearson
Education.

Searle, J. (1969). *Speech Acts: An Essay in the Philosophy of Langua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Searle, J. (1979). *Expression and Meaning*.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Wolfson, N. (1989). *Perspectives: Sociolinguistics and TESOL*. New
York: Newbury House.

Yule, G. (1996). *Pragmatics*. Oxford University Press.

ABSTRACT

The Pragmatic Analysis of the Dialogs from English Conversation Textbooks and Conversation Books Written by Native Speakers

Lee, Ho-soon.

Department of English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Directed by Prof. Chung, So-woo.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dialogs from 4 high school English conversation textbooks (ECT) under the 7th national curriculum, in terms of pragmatics. For this analysis, 3 English conversation books(ECB) written by native speakers were also selected as comparative materials which are thought to be more like native speakers' dialogs and give a reflection of their pragmatic competence.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ragmatic differences between the dialogs from the two types of materials and thus make a proposal for improving dialogs in textbooks. Assuming that there may be differences between dialogs according to conversation styles, a style analysis precedes the main analysis, considering the situation and the topic of the dialogs. The

pragmatic features analyzed in this study are indirect speech acts, politeness, pre-sequences, insertion sequences, and dispreferred structure, an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for conversation styles, more informal dialogs are presented than neutral dialogs in textbooks. Meanwhile, both deliberative styles and intimate styles of speaking activities are not found anywhere in dialog parts in either ECT or ECB. Second, more indirect speech acts are used in neutral dialogs than in informal dialogs in both materials. However, the gap between the proportion of indirect speech acts in neutral and informal styles in ECB is bigger than that of ECT. This means that ECB reflects the fact that indirect speech acts are used for politeness and that the face saving acts are better than that of ECT. In the case of politeness, excessively polite expressions for requests were employed in informal situations in ECT. Third, in conversation structure, more various kinds of pre-sequence and insertion sequences are presented in ECT than ECB. On the other hand, in the aspect of conversation structures, ECB has more dispreferred structures among the dialogs and therefore, more diverse strategies to express an unexpected response to the interlocutor's utterance can be found.

Based on the analysis above, this thesis suggests that deliberative styles and intimate styles should be introduced in ECT so that learners can be exposed to various conversation situations and are aware of the conversational differences depending on the listener's social distance, power, and the weight of imposition of requests. Also, dialogs which are classified into informal styles need to be lowered in their formality

because in the aspect of expression, they are not that different from those which belong to neutral styles. Finally, it is recommended that excessively polite expressions in informal dialogs be corrected in a more casual way, if they are not used for difficult requests.